

傷寒論 解釋에 필요한 修辭技法에 대한 文獻的 研究

*金俊鎬 · 崔達永 · 文瀾典

I. 序 論

醫古文은 古代 醫學家들이 古代漢語를 사용하여 著作한 醫學 典籍을 말한다. 이는 先人들이 오랜 기간동안 疾病과 싸워 오면서 蓄積한 多樣한 治療 經驗의 所産일뿐만 아니라, 先人들이 쌓아온 知慧의 所産이므로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醫古文에 대한 精確한 學習이 必需的이라 할 것이다.¹⁾

그러나 現代漢語와 古代漢語는 語法에 있어 많은 相異點이 있으므로 現代 中國人에게 있어서도 그 “教學方法”의 開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이에 論者는 醫古文의 代表的인 典籍인 傷寒論에 있어, 拙稿 “傷寒論 倒裝句法에 대한 文獻的 研究”²⁾와 相關하여, 現代 中國의 代表的 言語學者의 一人으로 認定받고 있는 王力³⁾의 古代漢語에 대한 接近 方法을 紹介하고 이러한 觀點에서 서술된 醫古文 專門

書籍을 底本으로 하여 傷寒論 序文 및 條文의 解釋에 필요한 古代漢語의 一般 修辭技法에 대하여 整理한 內容을 報告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王力’의 ‘古代漢語’에서의 接近 方法 紹介

王力이 그의 教材에서 提示하고 있는 古代漢語에 대한 接近 方法인 “感性認識과 論理認識의 結合”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提起되는 問題의 解決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內容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옛날 사람들은 고대한어를 공부하는데 모두 感性認識만을 중시하여 多讀, 熟讀을 강조하고 이른바 “글을 백번 읽으면 그뜻이 스스로 밝혀진다. [讀書百遍 其義自見]”하였 다. 그러나 理性認識의 경지까지는 올라가지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1) 王建公 : 醫古文直譯, 西安, 陝西科技出版社, 1987, p.1

2)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相互間에 相關되는 方法論을 말한다. 敎授者의 立場외에도 授業을 받는 學生의 學習上 效率性도 함께 고려한 方法論을 意味한다.

3) 동의병리학회지 vol.6, 223-232 (1991)

이 論文은 傷寒論에 特有하게 사용된 倒裝句法에 關하여 다루고 있다.

4) 王喜 主編 : 古代漢語知識辭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8, p.442

參照 王力(1900-1986) 卓越한 言語學者, 敎育家, 詩人, 翻譯家이며 字는 了一.

못하여, 왕왕 마음 속으로는 짐작하면서도 말로는 전달하지 못하며 그런 줄은 알면서도 [知其然]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였다[而不知其所以然]. 수준을 좀 높히려면 소위 小學(문자 음운 훈고)을 배워야 하나, 그것도 또한 별 계통이 없었다.

뒤에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고등학교에서 고대어문을 교육할 때에는 문자학 음운학 훈고학 문법학 같은 과목을 쪼개어 설치하고서 형식적으로 과학적인 계통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이론을 위한 이론으로 흘렀지 결코 고서를 열독할 능력을 배양함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분명한 것은 위의 두가지 방법이 모두 큰 偏面性を 지니고 있어 오늘날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한어(한문)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열쇠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 열쇠만 장악하게 되면 곧 모든 고적의 문을 열 수가 있게 되어 글 한편을 배우면 한편만 알고 배우지 않은 것은 캄캄하게 모르는 것과 같은 옛날 식의 교육 방법을 탈피하게 될 것을 희망하게 된다. 이러한 희망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열쇠는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러한 열쇠를 영단이나 요약과 같이 생각하여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이러한 열쇠는 자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교육 내용을 다시 고려하고 강의와 학습 방법을 바꾸어 나가서 학생들로 하여금 한가지 일을 통하여 비슷한 도리를 깨닫게 하고 [觸類旁通]하고, 한가지 원리를 터득하여 여러가지 사실에 적용할

[執一馭萬]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은 아주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理性認識은 感性認識에 의뢰하고, 感性認識은 理性認識으로 발전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 말은 고대한어를 배우는데도 꼭 따라야 할 원칙임을 느낀다. 고대한어를 배우는데도 반드시 고대한어에 대한 感性認識과 理性認識을 결합하여야만 비로소 豫期한 효과를 거둘 것을 희망할 수 있다.”⁵⁾

2. 修辭技法

修辭란 言語를 調整하고 修飾하여 그 言語를 더욱 正確, 鮮明, 生動, 形象感있게 만들어 思想交流와 感情傳達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修辭란 語音 語義 語彙 語法을 綜合的으로 運用하는 高次元의 言語現象이며 言語에 대한 正確한 運用과 藝術性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⁶⁾

이에 本考는 段逸山이 저작한 <醫古文>의 修辭篇을 基礎로 하여 傷寒論과 金匱要略 등에 多用된 修辭技法을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1) 引用

어떠한 문제 혹은 자기의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전인(前人)의 말과 사례를 빌려오는 수사방법을 말한다.⁷⁾

① 若翁者, 殆古所謂直諫多聞之益友.<丹溪翁傳>⁸⁾

<論語 季氏 四>: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⁹⁾에서 인용하여 주단계의 높은 품덕과 깊고

5) 王力 主編: 古代漢語 第一冊, 北京, 中華書局, 1980, pp.1-2

6) 向燾 前揭書, p.318

7) 段逸山: 醫古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655

8) 王建公 前揭書 p.89

9) 楊伯峻: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1980, p.175

넓은 지식을 칭찬함.

② 惟是皮質之難窺，心口之難辨，守中者無言，懷玉者不銜，此知醫之所以爲難也，… 惟是伯牙常有也，而鍾期不常有；夷吾常有也，而鮑叔不常有，此所以相知之難，自古苦之，誠不足爲今日怪。〈病家兩要說〉¹⁰⁾

伯牙와 鐘子期の 고사는 〈呂氏春秋 本味〉〈列子 湯問〉篇 등에 보이고 管仲과 鮑叔牙의 고사는 〈史記 管晏列傳〉에 보인다.

③ 知我罪我，一任當世，豈不善乎？〈溫病條辨-序〉¹¹⁾

여기서 “知我罪我”는 〈孟子 滕文公下 九〉¹²⁾에 나오는 구절인데 王廷珍이 이 구절을 차용하여 吳 唐이 당시 사회여론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을 위로하였다.

④ 崇飾其末，忽棄其本，華其外而悴其內，皮之不存，毛將安附焉？〈傷寒論 序〉¹³⁾

“皮之不存，毛將安附焉”은 〈左傳 僖公十四年〉¹⁴⁾이 출전인데 장중경이 이 구절을 사용하여 名利만을 추구하고 의학을 窮究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생동감있게 표현하였다.

⑤ 陽明者 胃脈也。胃者 六腑之海 其氣逆下行。陽明逆 不得從其道 故不得臥也。〈下經〉曰：“胃不和則臥不安。”此之謂也。〈素問

逆調論〉¹⁵⁾

(1) 引用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① 〈經〉의 구절을 인용한다고 할 때 통상 〈素問〉〈靈樞〉를 의미하나 때때로 〈難經〉이나 〈傷寒論〉을 의미할 때가 있다.

② 〈經〉의 구절을 인용할 때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

③ 인용에 있어 출전이나 기타 내용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있음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委婉

含蓄的 意味를 가진 用語를 사용하여 본래의 의도를 婉曲하게 표현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¹⁶⁾

(1) 疾病이나 죽음에 관계되는 용어를 완곡하게 표현

① 劉子間居，有負薪之憂。〈鑿藥〉¹⁷⁾

② 氣散歸空。〈東醫寶鑑 身形篇〉¹⁸⁾

여기에서 “負薪之憂”는 疾病을 의미하고 “歸空”은 죽음을 의미한다.

(2) 二便이나 性에 관련된 용어의 완곡한 표현

① 傷寒，噦而腹滿，視其前後，知何部不利，利之即愈。

〈傷寒論 辨厥陰病脈證并治〉¹⁹⁾

10) 張介賓：景岳全書，台北，台聯國風出版社，民國69年，p.77

11) 段逸山 前揭書 p.295

12) 楊伯峻：孟子譯注，中華書局，北京，1983，p.155

13) 劉渡舟：傷寒論語譯，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p.[17]

14) 楊伯峻編著：春秋左傳注 第一冊，北京，中華書局，1983，p.348

15) 郭霽春編著：皇帝內經素問校注語譯，天津，天津科技出版社，1981，p.208

16) 段逸山 前揭書 p.658

17) 王建公 前揭書 p.319

18) 許浚 編著：東醫寶鑑 卷一，서울，大成文化社，1990，p.79

19) 張啓基 王輝武 合編：傷寒論手冊，重慶，科技出版社，1984，p.34(三八一)

여기서 “前後”는 大小便을 의미한다.

② 初服湯當更衣, 不爾者, 盡飲之, 若更衣者, 勿服之.

〈傷寒論 辨陽明病脈證并治〉²⁰⁾

여기서 “更衣”는 大便보는 것을 의미한다.

③ 今時之人不然也, 以酒爲漿, 以妄爲常, 醉以入房, 以欲竭其精, 以耗散其眞.〈素問 上古天真論〉²¹⁾

여기서 “入房”은 남녀의 성적 결합을 의미한다.

④ 右二味 末之 煉蜜和丸 棗核大 內藏中 劇者再內之.

〈金匱要略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²²⁾

藏中：陰道를 의미한다.

3) 割裂

故事 成語의 일부분 만을 切取하여 本義를 표시하는 修辭方法을 말한다.²³⁾

(1) 관련(關聯) 成語의 일부분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① 固將拯蒸民於天枉 宜寤寐乎此篇. 〈本草經疏 藥性差別論〉²⁴⁾

〈詩經 周南 關雎〉“窈窕淑女 寤寐求之”²⁵⁾에서 “寤寐”가 “求”의 의미를 代用하고 있다.

즉 成語의 앞부분으로 뒤부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② 成敗倚伏生乎動. 〈素問-六微旨大論〉²⁶⁾

〈老子 第五十八章〉“禍兮福所倚 福兮禍所伏”²⁷⁾의 구절에서 “倚”는 “禍”의 代用이고 “伏”은 “福”의 代用이다. 이는 ①과 달리 뒤부분이 앞부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類經〉“倚伏者 禍福之萌也. 夫物盛則衰 樂極則哀 是福之極而禍之倚也. 未濟而濟 否極而泰 是禍之極而福所伏也. 故當其盛也, 敗則倚之 當其敗也 成實伏之 此成敗倚伏流行于變化之中也.”²⁸⁾

〈王水注〉“由是成敗倚伏生於動之微甚遲速爾”²⁹⁾

(2) 관련 성어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① 趨世之士, 馳競浮華, 不固根本, 忘驅徇物, 危若氷谷, 至于是也!

〈傷寒論 序〉³⁰⁾

〈詩經 小雅 小宛〉“惇惇小心 如臨于谷; 戰戰兢兢 如履薄氷”³¹⁾의 의미를 “氷谷” 兩字로써 나타내고 있다.

② 長沙論 歎高堅〈陳修園 醫學三字經

20) 張啓基 外 前揭書 p.27(二〇八)

21) 郭霽春 前揭書 p.1

22) 段光周 外：金匱要略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8, p.70(十五)

23) 段逸山 前揭書 p.660

24) 文淵閣四庫全書, 서울, 驪江出版社, 1988, 卷775 p.304

25) 朱熹注：詩經集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p.1

26) 郭霽春 前揭書 p.399

27) 徐倍林註譯：新譯老子讀本, 台北, 三民書局, 民國71年, p.94

28) 張介賓：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839

29) 王水注：內經素問 冊二, 台北, 台灣中華書局, 民國76年, 卷十九, 二五

30) 劉渡舟 前揭書 p.[17]

31) 朱熹 前揭書 p.94

傷寒瘟疫》³²⁾

〈論語 子罕〉“仰之彌高 鑽之彌堅”³³⁾ 兩文句의 의미를 “高堅”으로 縮約하고 있다.

4) 比喻

두가지 本質上 서로 다른 事物에 있어 相似點이 있는 경우 이러한 相似點을 이용하여 한쪽 事物로서 다른 쪽 事物을 나타내는 修辭方法을 말한다.³⁴⁾

比喻에 있어서는 주로 세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正文：說明하고자 하는 事物

喻文：비교되는 事物

喻詞：“如，若”과 같은 單語

예) 目赤如鳩眼(눈이 붉은 것이 비둘기와 같다)

正文：目赤

喻文：鳩眼

喻詞：如

(1) 明喻

正文, 喻文, 喻詞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① 疾徐如輪扁之手 輕重若庖丁之刀
〈類經附翼 醫易義〉³⁵⁾

輪扁：春秋時代 齊國의 工匠

庖丁：〈莊子 養生主〉³⁶⁾

② 婦人少腹滿 如敦狀 〈金匱要略 婦人雜病脈證并治第二十二〉³⁷⁾

敦：古代的 盛器로 圓形이지만 가운데가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음

③ 腰以下冷痛 腹中如帶五千錢 甘薑 苓朮湯主之.

〈金匱要略 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 第十一〉³⁸⁾

(2) 暗喻

喻詞는 생략되고 正文과 喻文만으로서 비유하는 경우

① 一身之身 一國之象也.〈東醫寶鑑 身形篇〉³⁹⁾

人間 身體의 機能을 國家의 政治 制度에 비유했다.

② 夫水病人 目下有臥蠱 面目鮮澤 〈金匱要略 水氣病脈證病治第十四〉⁴⁰⁾

눈아래가 부은 것을 누에가 누워 있는 形狀에 比喻했다.

(3) 借喻

喻詞와 正文이 없고 喻文으로서만 비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① 或益之畎澮以, 或泄之以尾閭. 〈養生論〉⁴¹⁾

“畎澮”는 ‘田中水溝’로서 補益之 ‘少’ 함을 비유하고

“尾閭”는 전설에 나오는 海水가 所歸하는 구멍으로서 消耗之 ‘多’ 함을 비유한다.

32) 方藥中：醫學三字經闡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94

33) 楊伯峻 前揭書(論語) p.90

34) 段逸山 前揭書 p.661

35) 張介賓：類經圖翼(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396

36) 安東林：新譯莊子內篇, 서울, 玄岩社, 1984, p.139

37) 段光周 外 前揭書 p.69(十四)

38) 前揭書 p.33(十六)

39) 許浚 前揭書 p.77

40) 段光周 前揭書 p.43(十一)

41) 王建公 前揭書 p.126

(4) 도표

	明喩	暗喩	借喩
喩文	0	0	0
正文	0	0	×
喩詞	0	×	×

5) 摹狀

事物의 形態와 聲音을 形象化하여 描寫하는 修辭方法을 나타낸다.⁴²⁾

(1) 形態의 描寫

사람과 사물의 형태와 상황을 묘사

① 溫覆令一時許, 遍身熱熱微似有汗者益佳. <傷寒論 辨太陽病脈證并治上>⁴³⁾

여기서 “熱熱”은 본래 “小雨不輟”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여 “微汗潮潤之狀”을 나타낸다.

② 傷寒發熱無汗 口不能食 而反汗出濇然者 是轉屬陽明也.

<傷寒論 辨陽明病脈證并治>⁴⁴⁾

(2) 聲音의 描寫

① 大腸病者, 腸中切痛而鳴濯濯.<靈樞邪氣臟腑病形>⁴⁵⁾

여기서 “濯濯”은 장이 꾸르르거리는 소리를 묘사한다.

② 其人素盛今瘦 水走腸間 漚漚有聲 謂之痰飲.

<金匱要略 痰飲咳嗽病脈證并治第十二>⁴⁶⁾

(3) 古醫書에서 脈象과 病症을 묘사하기 위해 많이 운용한 수사 기법이다.

예) 渾渾: 혼탁한 모양 <素問 脈要精微論> “渾渾革至如涌泉”⁴⁷⁾

厥厥: 꺼꺼럽게 잘 움직이지 않는 모양(有根不移貌)

攝攝: 微動하는 모양

“皮水爲病 四肢腫 水氣在皮膚中 四肢攝攝動者 防己茯苓湯主之” <金匱要略 水氣病脈證并治第十四>⁴⁸⁾

嗇嗇: 畏怯貌

淅淅: 風聲

翁翁: 輕微貌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嗇嗇惡寒, 淅淅惡風, 翁翁發熱, 鼻鳴幹嘔者, 桂枝湯主之.”

<傷寒論 辨太陽病脈證并治上>⁴⁹⁾

6) 借代

두가지 事物이 서로 類似하지는 않으나 分離할 수 없는 連繫를 가질 때 이러한 聯繼性을 이용하여 한 事物로서 다른 事物을 代替하는 修辭 方法을 말한다.⁵⁰⁾

(1) 事物의 特徵이나 表識으로 事物을

42) 段逸山 前揭書 p.664

43) 張啓基 外 前揭書 p.1(十二)

44) 張啓基 外 前揭書 p.25(一八五)

45) 任應秋: 皇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78(三.三)

46) 段光周 外 前揭書 p.34(三)

47) 郭篤春 前揭書 p.96

48) 段光周 外 前揭書 p.45(二十四)

49) 張啓基 外 前揭書 P.1(十二)

50) 段逸山 前揭書 p.666

代用

① 深泉淨滢, 鱗介成分.〈黃帝內經素問 注 序〉⁵¹⁾

鱗: 비늘이 있는 水族을 代用

介: 介殼이 있는 水族을 代用

(2) 事物의 所屬이나 所在로서 事物을 代用

① 孫思邈, 京兆華原人, 通百家說, 善言老子, 莊周.〈孫思邈傳〉⁵²⁾

老子: 老子的 學說을 代用

莊周: 莊子の 學說을 代用

(3) 事物의 材料나 工具로서 事物을 代用

① 迄明 始有吳學臯之集〈醫方考〉, 文義清疎 同人膾炙 是以梨棗在易

〈醫方集解序〉⁵³⁾

梨棗: 梨木이나 棗木으로 만든 書板

(4) 特定과 普通의 相互 代用

① 人一呼脈行三寸, 一吸脈行三寸.〈難經 一難〉⁵⁴⁾

人: 健康한 사람을 意味 즉 普通名詞가 特定한 意味로 縮小됨

(5) 具體와 抽象의 相互 代用

① 師曰 腎口清 身冷 爲入藏 即死;

如身和 汗自出 爲入府 即愈.

〈金匱要略 藏府經絡先後病脈證第一〉⁵⁵⁾

藏=裏, 府=表를 의미

② 病人身大熱 反欲得近衣者 熱在皮膚 寒在骨髓也; 身大寒 反不欲近衣者 寒在皮膚 熱在骨髓也.〈傷寒論 辨太陽病脈證并治上〉⁵⁶⁾
皮膚=表, 骨髓=裏를 의미한다.

(6) 部分과 全體의 相互 代用

① 傷寒嘔多, 雖有陽明證, 不可攻之.〈傷寒論 辨陽明病脈證並治〉⁵⁷⁾

攻: '瀉下'만을 의미

② 肺氣通于鼻 和則能知香臭矣.⁵⁸⁾

여기서 香臭는 온갖 냄새를 모두 의미한다.

7) 避復

重複을 피하여 單語에 變化를 주어 上下 文章이 서로 다른 語句를 사용하나 같은 意味를 나타내도록 하는 修辭 方法을 말한다.⁵⁹⁾

(1) 實詞避復

① 由是午前卯後 太陰生而疾溫 離左 西南 月朔死而速冷〈標幽賦〉⁶⁰⁾

太陰, 月朔: 모두 '月亮'을 의미

② 寶百年之壽命 持至寶之重器 委付 凡醫 恣其所措〈傷寒論 序〉⁶¹⁾

寶, 持: 모두 '가지다'를 의미하는 동의어

51) 王冰 前揭書 冊一 序三

52) 陳夢雷: 醫部全錄 第十二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32

53) 王建公 前揭書 p.279

54) 葉霖: 難經正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2

55) 段光周 外 前揭書 p.3.(十二)

56) 張啓基 外 前揭書 p.1(十一)

57) 前揭書 p.26(二〇四)

58) 華陀: 中藏經, 江蘇省, 江蘇科技出版社, 1985, p.31

59) 段逸山 前揭書 p.668

60) 黑龍江省祖國醫學研究所: 針灸大成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206

61) 劉渡舟 前揭書 p.[17]

③ 春夏則陽氣多而陰氣少 秋冬則陰氣盛而陽氣衰<素問 厥論>⁶²⁾

多, 盛: 동의어

少, 衰: 동의어

④ 頭痛發熱 微盜汗出 而反惡寒者 表未解也. 醫反下之...陽氣內陷...

<傷寒論 辨太陽病脈證并治下>⁶³⁾

表와 陽氣는 모두 表邪의 의미이다.

(2) 虛詞避復

① 帝曰 願盡聞之 岐伯曰請遂言之<素問 六元正氣大論>⁶⁴⁾

盡, 遂: '다, 모두'를 의미하는 동의어

② 寸口脈動而弱 動即爲驚 弱則爲悸.
<金匱要略 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第十六>⁶⁵⁾

即 則: 같은 의미이나 반복을 피해 달리 사용함

③ 夫中寒家 喜欠. 其人清涕出 發熱色和者 善嚏.

<金匱要略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第十>⁶⁶⁾

喜, 善은 같은 의미이다.

④ 太陽與少陽合病 自下利者 與黃芩湯; 若嘔者 黃芩加半夏生薑湯主之.

<傷寒論 辨太陽病脈證并治下>⁶⁷⁾

自, 若은 "만약"의 뜻을 가진 假設連詞 서로

같은 의미이다.

參考: 太陽與陽明合病者 必自下利 葛根湯主之⁶⁸⁾

太陽與陽明合病者 不下利 但嘔者 葛根可半夏湯主之⁶⁹⁾

(3) 詞組 句子的 避復

① 當是時也 却似承氣湯證 承氣入口 即斃 却似白虎證 白虎下咽即亡

<醫貫 陰虛發熱論>⁷⁰⁾

入口, 下咽: '마시다'의 의미로 동의어

② 是故逆與從 正行無問; 知標本者 萬舉萬當<素問 標本傳病論>⁷¹⁾

"正行無問", "萬舉萬當":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8) 錯綜

上下文의 名稱과 語順을 交錯使用하여 變化를 주는 修辭方法을 말한다.⁷²⁾

(1) 錯名

① 是以春夏歸陽爲生 歸秋冬爲死.<素問 方盛衰論>⁷³⁾

"陽"은 "秋冬"의 錯名이다.

王冰注: "歸秋冬 謂反歸陰也"

四時를 陰陽으로 분류하면 春夏는 陽에 속하고 秋冬은 陰에 속하는데 下文에서 陰

62) 郭霽春 前揭書 p.271

63) 張啓基 外 前揭書 p.17(一三四)

64) 郭霽春 前揭書 p.433

65) 何任: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69

66) 段光周 外 前揭書 p.28(六)

67) 張啓基 外 前揭書 p.23(一七二)

68) 張啓基 外 前揭書 p.5(三二)

69) 前揭書 p.5(三三)

70)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8

71) 郭霽春 前揭書 p.374

72) 段逸山 前揭書 p.669

73) 郭霽春 前揭書 p.520

이라 하지 않고 ‘秋冬’이라고 한 것은 上文의 ‘陽’에 對舉하여 文詞에 변화를 준 것이다.

② 七曜緯虛 五行麗地.〈素問 天元紀大論〉⁷⁴⁾

下文에서 ‘地’라고 했지만 上文에서 ‘天’이라 하지 않고 ‘虛’라고 한 것은 ‘虛’와 ‘地’를 錯舉한 것이다.

③ 厥陰有餘病陰痺 不足病生熱痺.〈素問 四時刺逆從論〉⁷⁵⁾

‘陰, 陽’이나 ‘寒, 熱’이라 하지 않고 ‘陰, 熱’이라고 하였다.

④ 食穀欲嘔 屬陽明也 吳茱萸湯主之. 得湯反劇者 屬上焦也.

〈傷寒論 辨陽明病脈證治〉⁷⁶⁾

‘中焦, 上焦’라 하지 않고 ‘陽明, 上焦’라고 하였다.

⑤ 傷寒六七日 大下後 寸脈沈而遲 手足逆冷 下部脈不至.

〈傷寒論 辨厥陰病脈證并治〉⁷⁷⁾

‘寸脈, 尺脈’이나 ‘上部脈, 下部脈’이라 하지 않고 ‘寸脈, 下部脈’이라고 하였다.

⑥ 得病二三日 脈弱 無太陽柴胡證.〈傷寒論 辨陽明病脈證并治〉⁷⁸⁾

太陽少陽證이라 하지 않고 太陽柴胡證이라고 하였다.

(2) 錯序

順序를 交錯한다는 뜻으로서 前後 詞語의 順序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文章의 語氣에 變化를 주는 修辭方法을 말한다.

가. 主謂錯序 : 主語와 謂語의 錯序

① 傷寒 熱少微厥 指頭寒 默默不欲食. 〈傷寒論 辨厥陰病脈證并治〉⁷⁹⁾

‘熱少微厥’은 ‘熱少厥微’와 같은 의미이나 문장의 호흡을 고르게 하기 위해 錯序시켰다. “厥甚者 熱亦甚, 厥微者 熱亦微”⁸⁰⁾

② 太過則令人逆氣而背痛 〈甲乙經 經脈上〉⁸¹⁾

‘逆氣而背痛’ = ‘氣逆而背痛’

나. 動賓錯序 : 動詞와 賓語(目的語)의 錯序

① 刺針必肅 刺腫搖針 經刺勿搖. 此刺之道也.〈素問 診要經終論〉⁸²⁾

刺腫 = ‘動詞 + 賓語’

經刺 = ‘賓語 + 動詞’로 착서된 표현

② 傷寒六七日 無大熱 其人煩燥者 此爲陽去入陰故也.

〈傷寒論 辨少陽病脈證并治〉⁸³⁾

陽去入陰 = ‘賓語 + 動詞 ; 動詞 + 賓語’의 구조이나 정상적 구조로 바꾸면 ‘去陽入陰’으로 되어야 한다.

9) 分承

文章 중에서 최소 두 句節 이상에서 構造가

74) 前掲書 p.386

75) 前掲書 p.370

76) 張啓基 外 前掲書 p.21(二四三)

77) 前掲書 p.42(三五七)

78) 前掲書 p.32(二五一)

79) 前掲書 p.40(三三九)

80) 前掲書 p.40(三三五)

81) 山東中醫學院校釋 : 針灸甲乙經校釋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509

82) 郭霽春 前掲書 p.92

83) 張啓基 外 前掲書 p.33(二六九)

相同할 때 내용을 強調하기 위하여 文章 構成 要素의 順序를 變更하는 修辭方法을 말한다.⁸⁴⁾

(1) 順承

① 普施行之 年九十餘 耳目聰明 齒牙完堅.<華陀傳>⁸⁵⁾

耳目聰明 = 耳聰 + 目明

위의 文章은

春孟月之脈 仍徇 冬季月之常
夏孟月之脈 仍徇 春季月之常
秋孟月之脈 仍徇 夏季月之常
冬孟月之脈 仍徇 秋季月之常

의 意味를 명확히 나타내고자 語句 順序에 變化를 준 것이다.

③ 夫六六之節 九九制會者 所以正天之度 氣之數也.⁸⁷⁾

王冰注 “六六之節 天之度也, 九九制會 氣之數也.”⁸⁸⁾

④ 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⁸⁹⁾

四時 一) 生長收藏

五行 一) 寒暑燥濕風

(2) 錯承

① 太陽之爲病 脈浮頭項強痛而惡寒 <傷寒論 辨太陽病脈證并治>⁹⁰⁾

頭項強痛 = 頭痛項強

“病如桂枝證 頭不痛 項不強”⁹¹⁾에서 頭痛

齒牙完堅 = 齒完 + 牙堅

② 所以春夏秋冬孟月之脈 仍徇冬春夏秋季月之常 不改其度.

<醫門法律 秋燥論>⁸⁶⁾

‘孟’, ‘仲’, ‘季’는 各季節에 있어 三個月의 次序이다.

項強이 원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② 解惑者 盡知調陰陽 補瀉有餘不足 <靈樞 刺節真邪論>⁹²⁾

補瀉有餘不足 = 補不足 瀉有餘

③ 此回陽倒陰之里 補瀉盛衰之功.<通玄指要賦 楊繼洲注>⁹³⁾

補瀉盛衰 = 補衰瀉盛

④ 勞則喘息汗出 外內皆越 故氣耗矣. <素問 舉痛論>⁹⁴⁾

“喘息則內越 汗出則外越”의 의미이다.

(3) 複雜分承

① 治有逆從者 以病有微甚; 病有微甚者 以證有真假也.

84) 段逸山 前揭書 p.671

85) 陳夢雷 前揭書 p.98

86) 喻昌: 醫門法律,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83, p.157

87) 郭霽春 前揭書 p.58

88) 王冰 前揭書 冊一 卷三 十二

89) 郭霽春 前揭書 p.32

90) 張啓基 外 前揭書 p.1(一)

91) 前揭書 p.22(一六六)

92) 任應秋 前揭書 p.457(一.一)

93) 黑龍江省祖國醫學研究所 前揭書 p.238

94) 郭霽春 前揭書 p.239

〈張氏類經 病有真假辨〉⁹⁵⁾

逆治 -> 病微 -> 證眞

從治 -> 病甚 -> 證假

② 太陽病 宜發汗 遂發熱惡寒 因復下之 心下痞 表裏俱虛 陰陽氣并竭.

〈傷寒論 辨太陽病脈證并治下〉⁹⁶⁾

發汗->(發熱惡寒)->表虛->陽氣竭

下之一->(心下痞)->裏虛->陰氣竭

10) 省略⁹⁹⁾

(1) 簡稱

煩雜함을 피하거나 文句의 整齊, 音律의 調和를 위하여, 人名, 地名, 書名 또는 藥名, 穴位名 등을 간략히 表現하는 것을 말한다.

① 昔皇帝與天師難疑答問之書 未嘗不以攝養爲善 始論乎〈天真〉 次論乎〈調神〉.

〈朱丹溪 丹溪心法 不治已病治未病論〉⁹⁸⁾

〈天真〉 = 〈上古天真論〉

〈調神〉 = 〈四氣調神大論〉

(2) 跳脫

上句와 반대되는 구절을 생략하여 文意가 일견 연속되지 않게 하여 읽을 때 무엇인가 빠뜨려졌다는 느낌을 갖게하여 뜻을 강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下利清谷, 不可攻表, 汗出必脹滿. 〈傷寒論 辨厥陰病脈證并治〉⁹⁹⁾

“汗出必脹滿” 앞에 “若攻表”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誤治했을 때의 결과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② 痼疾人, 不可食熊肉, 令終身不愈. 〈金匱要略 禽獸魚蟲禁忌并治〉¹⁰⁰⁾

“若食熊肉”을 생략시킴으로서 “食熊肉”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③ 服已須臾 熱稀粥一升余 以助藥力 溫覆令一時許 遍身熱熱 微似有汗者益可 不可令如水流漓 病必不除. 〈傷寒論 太陽病脈證并治上〉¹⁰¹⁾

“不可令如水流”와 “病必不除” 사이에 의미상 “若如水流漓” “否則” “不然” 등이 들어가야 한다.

(3) 包含

한의학에서 病을 診斷하고 辨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證候를 상세히 記述한다. 그러나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있어서는 語錄式 文體를 사용하고 文章이 대부분 簡單하여 行文이 “言簡意賅”할 것을 필요로 하므로, 자연적으로 證候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한概念 속에 다른 概念을 包含시켜 反復記述하는 것을 省略하는 修辭方法을 말한다.

① 太陽病, 發熱無汗, 反惡寒者, 名曰剛瘧. 太陽病, 發熱汗出, 而不惡寒, 名曰柔瘧. 〈金匱要略 瘧濕喝病脈證治第二〉¹⁰²⁾

同篇에 “病者身熱足寒 頸項強急 惡寒 時頭熱 面赤 目赤 獨頭動搖 卒拘攣 背反張者 瘧病也”라는 조문이 있으므로 “強瘧” “柔瘧”의 “瘧”에는 상기 조문의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단지 “汗出”과 “不汗出”로 辨證의 要領을 보여 주고 있다.

95) 張介賓 前揭書(張氏類經) p.330

96) 張啓基 外 前揭書 p.20(一五三)

97) 段逸山 前揭書 p.674

98)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成文化社, 1989, p.47

99) 張啓基 外 前揭書 p.43(三六四)

100) 段光周 外 前揭書 p.78

101) 張啓基 外 前揭書 p.2(十二)

102) 段光周 外 前揭書 p.4(一, 二)

이 修辭 技法은 條文 暗記의 必要性에 대한 理論的 根據가 된다.

② 太陽病, 外證未解, 脈浮弱者, 當以 汗解, 宜桂枝湯.

〈傷寒論 辨太陽病脈證并治上〉¹⁰³⁾

“外證未解”에서 “惡寒 發熱 頭痛” 등의 증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脈浮弱에서 “自汗出”의 증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연히 桂枝湯을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下利譫語者, 有燥屎也, 小承氣湯主之.

〈金匱要略 嘔吐噎下利病脈證治第十七〉¹⁰⁴⁾

〈傷寒論 辨陽明病脈證并治〉에 “實則譫語 虛則鄭聲”¹⁰⁵⁾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섬어’가 陽明府實證의 主要 證候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條文에는 당연히 “腹部脹痛 潮熱 舌苔黃燥 小便黃赤” 등의 증세가 동반됨을 알 수 있다.

④ 夫短氣有微飲 當從小便去之 苓桂朮甘湯主之 腎氣丸亦主之.

〈金匱要略 痰飲咳嗽病脈證并治第十二〉¹⁰⁶⁾

苓桂朮甘湯은 “益脾土之功”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응증에 당연히 “脾土不健”의 증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腎氣丸은 “養陽氣之效”가 있기 때문에 그 적응증에 당연히 “腎陽虛衰”의 증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證因方略”의 경우에 해당한다.

11) 舉隅

一部分의 意味나 局所의 意味를 가지고 全體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⁰⁷⁾

(1) 舉此賅彼(한쪽을 들어 다른 쪽을 포함함)

① 凡十一藏, 取決於膽也.〈素問六節藏象論〉¹⁰⁸⁾

‘藏’은 ‘腑’를 포괄하는데 “臟五腑六”이기 때문에 “十一”이라고 하였다.

(2) 舉此見彼(한쪽을 들어 다른 쪽을 나타냄)

① 病者腹滿, 按之不痛爲虛, 痛者爲實, 可下之.

〈金匱要略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第十〉¹⁰⁹⁾

여기에서 당연히 “虛則不可下之”를 알 수 있다.

② 先治新病, 病當在後.〈金匱要略 水氣病脈證并治第十四〉¹¹⁰⁾

“病當在後”는 “治舊病當在後”를 의미한다.

“夫病痼疾 加以卒病 當先治其卒病 後乃治其痼疾”〈金匱要略 藏府經絡先後病脈證第一〉¹¹¹⁾과 같은 의미이다.

(3) 舉偏概全(부분을 들어 동류 전체의 의미를 나타냄)

103) 張啓基 外 前揭書 p.7(四二)

104) 段光周 外 前揭書 p.57(四十一)

105) 張啓基 外 前揭書 p.27(二一〇)

106) 段光周 外 前揭書 p.35(一七)

107) 段逸山 前揭書 p.676

108) 郭霽春 前揭書 p.62

109) 段光周 外 前揭書 p.28(二)

110) 段光周 外 前揭書 p.44(二十二)

111) 前揭書 p.3(十五)

① 五味或爽, 時味甘辛之節.〈新修本草序〉¹¹²⁾

앞에서五味라고 했기 때문에甘辛은酸苦甘辛鹹을 나타낸다.

② 下手處, 調水木是根基.〈標幽賦〉¹¹³⁾

“下手處”는 “用針之時”를 의미하기 때문에 “水木”은 “補瀉手法”을 의미한다.五行에 있어 “水生木 故水爲母 木爲子”이고 補瀉에 있어 “濟母爲補 奪子爲瀉”가 되므로 “水木”만으로서 “木火土金水” 전체의 補瀉를 나타낼 수 있다.

12) 互備

上下 文章에서 각기 한 單語씩 말하고 있으나 서로 補完하여 全體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다.¹¹⁴⁾

① 可乎五臟之寒熱, 能調六腑之虛實.〈標幽賦〉¹¹⁵⁾

여기에서 “五臟”과 “六腑”가 互備가 되어 “五臟六腑”의 寒熱虛實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된다.

② 黃帝問於岐伯曰 人焉受氣 陰陽焉會 何氣爲營 何氣爲衛 營安從生 衛於焉會.〈靈樞營衛生會篇〉¹¹⁶⁾

“營”과 “衛”가 互備가 되어 “營衛之所生”과 “營衛之會合”의 의미가 된다.

③ 經脈流行不止, 環周不休, 寒氣入經而稽遲, 泣而不行, 客於脈外則血少, 客於脈中

則氣不通, 故卒然而痛.〈素問 舉痛論〉¹¹⁷⁾

“氣”와 “血”이 互備가 되어 “客於脈外則血氣少”와 “客於脈中則血氣不通”의 의미가 된다.

素問直解: “寒客經脈 氣血不能流行環轉 苦卒然而痛”¹¹⁸⁾

④ 少陽病 脈微 不可發汗 亡陽故也. 陽已虛 尺脈弱 當者 復不可下之.

〈傷寒論 辨少陰病脈證并治〉¹¹⁹⁾

“陰虛脈澁”의 경우에 “不可發汗”하고 “不可下之”의 意味이지 “陽虛禁汗 陰虛禁下”의 의미가 아니다.¹²⁰⁾

III. 結 論

傷寒論과 金匱要略 등에 사용된 修辭技法의 分析을 통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醫古文에 있어 다양한 修辭技法이 구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文章의 內容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修辭技法에 관한 基礎的 理解가 必需的임을 알 수 있다.

2.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修辭技法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통해 兩著作이 同一系列 또는 同一人의 作品이라는 通說에 대한 傍證으로 삼을 수 있다.

3. 包含과 같은 修辭技巧가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兩者

112) 王建公 前揭書 p.246

113) 黑龍江省祖國醫學研究所 前揭書 p.185

114) 段逸山 前揭書 p.676

115) 前揭書 p.185

116) 任應秋 前揭書 p.325(一)

117) 郭霽春 前揭書 p.234

118) 高士宗: 素問直解,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2, p.281

119) 張啓基 外 前揭書 p.35(二八六)

120) 李培生 主編: 傷寒論講義, 長沙, 湖南科技出版社, 1986, p.231

의 學習 方法에 있어 “原文의 暗記”가 基本的임을 알 수 있다.

4. 修辭技巧의 運用에 있어 音韻에 관한 연구는 좀더 探討되어야 할 課題로 認識된다.

參 考 文 獻

1. 高士宗：素問直解，重慶，科技文獻出版社，1982，p.281
2. 郭鶴春編著：皇帝內經素問校注語譯，天津，天津科技出版社，1981，pp.1, 32, 58, 62, 92, 96, 208, 234, 239, 271, 370, 374, 386, 399, 433, 520
3. 段光周外：金匱要略手冊，重慶，科技出版社，1983，pp.3(十二，十五)，4(一，二)，28(二，六)，33(十六)，34(三)，35(一七)，43(1十一)，44(二十二)，45(二十四)，57(四十一)，69(十四)，70(十五)，78
4. 段逸山：醫古文，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6，pp.1, 185, 295, 655, 658, 660, 661, 664, 666, 668, 669, 671, 674, 676
5. 方藥中：醫學三字經闡述，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94
6. 山東中醫學院校釋：針灸甲乙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79，p.509
7. 徐倍林註譯：新老子讀本，台北，三民書局，民國71年，p.94
8. 葉霖：難經正義，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0，p.2
9. 安東林：新譯莊子內篇，서울，玄岩社，1984，p.139
10. 楊伯峻：論語譯注，北京，中華書局，1980，pp.90, 175
：孟子譯注，北京，中華書局，1983，p.155
：春秋左傳注 第一冊，北京，中華書局，1983，p.348
11. 王建公：醫古文直譯，西安，陝西科技出版社，1987，pp.89, 126, 246, 279, 319
12. 王力主編：古代漢語 冊一，北京，中華書局，1980，pp.2~3
13. 王冰注：內經素問 冊一，台北，台灣中華書局，民國76年，卷三(十二) 冊二，序三，卷十九(二五)
14. 王喜主編：古代漢語知識辭典，成都，四川人民出版社，1988，pp.318, 442
15. 劉渡舟：傷寒論語譯，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p.「17」
16. 喻昌：醫門法律，上海，上海科技出版社，1983，p.157
17. 李培生主編：傷寒論講義，長沙，湖南科技出版社，1986，p.231
18. 任應秋：皇帝內經章句索引，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6，pp.278(三三)，325(一)，457(一.一)
19. 張介賓：景岳全書，台北，台聯國風出版社，民國69年，p.77
：張氏類經，서울，成輔社，1982，pp.330, 839
：類經圖翼(附類經附翼)，서울，成輔社，1982，p.396
20. 張啓基 王輝武 台編：傷寒論手冊，重慶，科技出版社，1984，
pp.1(一，十一，十二)，2(十二)，5(三二，三三)，7(四二)，17(一三四)，20(一五三)，22(一六六)，23(一七二)，25(一八五)，26(二〇四)，27(二〇八，二一〇)，31(二四三)，32(二五一)，33(二六九)，35(二八六)，40(三三五，三三九)，42(1三五七)，43(三六四)，44(三八一)
21. 趙獻可：醫貫，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58
22. 朱震亨：丹溪心法附餘，서울，大成文化社，1989，p.47

23. 朱熹注：詩經集傳，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9, p.94
24. 陳夢雷：醫部全錄，第十二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p.98, p.132
25. 何任：金匱要略校注，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 p.169
26. 許浚 編著：東醫寶鑑 卷一，서울，大成文化社，1990, pp.77, 79
27. 華陀：中藏經，江蘇省，江蘇科技出版社，1985, p.31
28. 黑龍江省祖國醫學研究所：針灸大成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4, pp.186, 206, 238
29. 文淵閣四庫全書，서울，驪江出版社，1988, 卷775, p.304
30. 동의병리학회지 vol.6, 223-232(1991)